

# 제 2차 세계대전 후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성찰: 볼트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태연\*

- I. 들어가며
- II. 볼트만의 사상과 한국적 수용사 고찰의 필요성
- III. 탈신화론화: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통한 이해
- IV. 휴머니즘
- V. 볼트만의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1948)
- VI.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서 일어난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의 한 부분을 다룬다. 특히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그리스도교를 추구하던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루돌프 볼트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볼트만은 20세기 중반 특히 40년대 말 독일에서, 50년대 초 미국에서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서구 문명의 양 세력으로서의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미래적 관계를 제시했다. 그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20세기 휴머니즘의 다양한 역사적 조건들과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한국에서의 수용과 이해 맥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볼트만이 이해하는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를 둘러싼 사유의 역사적, 개념적 맥락에 대해 살피고 해석한다. 둘째, 1948년에

---

\*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교수

발표된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 작업을 통해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신학에 대해 고민하던 신학자들이 볼트만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게 된 맥락과 그 사유의 발전사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핵심어 : 루돌프 볼트만, 휴머니즘, 신휴머니즘(신인문주의),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 나치즘, 그리스도인의 실존, 탈신화론화

## I. 들어가며

세계대전은 세상의 폐허이기도 하였지만 인간의 이해를 둘러싼 사상의 격변과 갈등의 시대였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관념적 차원이 아닌, 전운의 폐허에서 그리고 인간 자신에게 제기되는 뼈아픈 질문이었다. 특히 서구 휴머니즘에 대한 의문제기는 정치와 철학과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인류 문명의 침병으로서 자부하던 서구가 이룩한 결과물이 바로 파국적 전쟁과 살육이었던 때문이다.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서 일어난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의 한 부분을 다룬다. 특히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그리스도교를 추구하던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루돌프 볼트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볼트만은 20세기 중반 특히 40년대 말 독일에서, 50년대 초 미국에서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서구문명의 양 세력으로서의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미래적 관계를 제시했다. 그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20세기 휴머니즘의 다양한 역사적 조건들과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한국에서의 수용과 이해 맥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첫째, 볼트만이 이해하는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를 둘러싼 사유의 역사적, 개념적 맥락에 대해 살피고 해석한다. 둘째, 1948년에 발표된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 작업을 통해 한국적으로 토착화된 신학에 대해 고민하던 신학자들이 볼트만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게 된 맥락과 그 사유의 발전사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볼트만의 사상과 한국적 수용사 고찰의 필요성

루돌프 볼트만(Rudolf K. Bultmann, 1884-1976)은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로서 신약학 분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특히 『공관복음서전 승사』(*Die Erforschung der synoptischen Evangelien*)(1925<sup>1)</sup>), 『요한복음서 연구』(*Das Evangelium des Johannes*)(1941<sup>1)</sup>), 『기독교 초대교회 형성사: 서양고대종교사상사』(*Das Urchristentum im Rahmen der antiken Religionen*)(1949<sup>1)</sup>), 『신약성서신학』(*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1948-53) 등 신약학의 주요 저작들은 해당 분야의 신학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고전으로서 자리매김 된다. 한국에서는 그의 저술은 신약성서와 신화론(*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의 영역본(*New Testament and Mythology*)을 저본으로 한 유동식의 국역을 시작으로 하여 5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번역되었다.<sup>1)</sup> 신약학자 허혁이 볼트만의 주요 저작 번역과 해석으로 기

1) Rudolf Bultmann, *Jesus Christ and Mythology* (New York: Scribner, 1958); 유동식 역,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서울: 신양사, 1959); 유동식 역,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신약성서와 신화론』 (서울: 신양사, 1959; 1969), 유동식; 허혁 역,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허혁 역, 『공관복음서 전승사: 문헌사적 연구』(*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1991); 허혁 역, 『고대 종교영

여한 이래, 볼트만 신학에 대한 수용과 해석은 7-80년대에 특히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볼트만이 단지 신약학의 영역에서만 머물렀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신학적 철학적 작업 또한 다수 남겼다. 그의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 서구 정신사적인 고찰에 대해 유동식은 이미 50년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며 볼트만의 영문저술을 국역했다. 볼트만의 사상이 미국을 경유하여 출판되었으며 ‘비신화화론’(非神話化論)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는 신약학에 대한 관심보다 선행했다.<sup>2)</sup> 한국 전쟁 이후 혼란기에 한국의 신학에 대해 고민하던 유동식은 볼트만의 해석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1959년에 출판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은 1958년에 미국에서 발행된 책을 유동식이 번역한 것이다.<sup>3)</sup> 1941년, ‘탈신화론화’에 대한 최초 논의 이후, 볼트만이 미국을 방문하여 1951년 10월 예일대 신학부 셰플러 강연(Shaffler lectures)과 동해 11월 밴더빌트대에 콜 강연(Cole lectures) 내용이 담긴 이 책을 번역한 것이니 매우 신속한 수용이었던 것이다.<sup>4)</sup>

---

역에 있어서의 초대기독교』(*Das Urchristentum im Rahmen der antiken Religionen*)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다음의 두 판본은 동일한 제목이 약간 변경되어 출판된 것: 『서양 고대종교사상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7), 『기독교 초대교회 형성사: 서양고대종교사상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허혁 역, 『요한복음서연구』 (*Das Evangelium des Johannes*) (서울: 성광문화사, 1979); 서남동은 1955년에 이루어진 볼트만의 기포드 강연(Gifford Lectures)이 담긴 *History and eschatolog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를 저본으로 하여 번역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 좀 더 내용이 보충되어 출간된 독역본 *Geschichte und Eschatologie*(1958) 또한 참조하여 번역을 완성시켰다. 서남동 역, 『역사와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10판))

2) R. 볼트만 저, 유동식 역, 『聖書의 實存論의 理解: 新約聖書와 神話論』 (서울: 新揚社, 1960), ‘비신화화론’이라는 번역어를 유동식이 처음으로 제시한다.

3) Rudolf Bultmann, *Jesus Christ and Mytholog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4) 볼트만,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5쪽.

다만 주의할 점은 미국에서의 독일신학 수용관련 담론의 스펙트럼과 미국에서의 영역본을 통해 볼트만 신학을 최초로 수용하게 된 맥락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다. 특히 탈신화론화에 대한 최초의 저술인 「신약성서와 신화론」의 영역본은 독어 원본과 차이를 보인다. 제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일어난 논쟁을 중심으로 저술된 독어 책이 영역되어 있고, 그 영역본에서 볼트만의 저술이 국역되어 한국에 수용된 것인 바, 국역본 또한 주의해서 독해될 필요가 있다.<sup>5)</sup>

볼트만의 신학은 일반적으로 ‘실존론적 신학’, ‘비신화화’ 라는 두 대표적 표현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비신화화’라는 개념과 그 내용의 이해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제 볼트만의 신약학 방법론은 성서학 분야에서 과거의 것이자 고전이 되었다할 지라도 그의 사유의 현재적 의의에 대한 작업은 독일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볼트만 신학과 사상의 수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토착신학과 민중신학을 발전시킨 한국의 신학사, 종교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유동식과 서남동, 변선환과 같은 학자들이 왜 볼트만의 해석학에 관심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단 본고는 유동식이 볼트만과 관련하여 참고도서목록으로 제시한 영역저술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와 관련한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유동식은 볼트만의 1952년 영어원고를 소개하지만,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일단 동일 제목의 1948년 독어본만을 다룬다.<sup>6)</sup>

---

5) 1948년 독일에서 출간된 책의 영역본. 편집과 번역의 문제를 알기 위해 대조가 필요하다. 볼트만 글의 영역본은 그 나름의 고유한 번역과 해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R. Bultmann and Five critics, *Kerygma and Myth: A Theological Debate*, H. W. Bartsch(ed.), R. H. Fuller(trans.) (New York: S.P.C.K., 1953).

볼트만의 신학은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또한 하이데거와의 학문적 교류 및 인간 실존에 대한 성서 해석을 근거로 하여 ‘실존론적 신학’으로 언급된다. 선이해 없이 한 학자의 사상을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선이해가 참고의 차원을 넘어 강한 선입견으로 고정될 경우, 그의 저술들을 모두 선입견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표현이 한국과 미국, 독일어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시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사용되는 것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태에서의 규정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당대의 저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글이 저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독자에게 읽히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입장과 맥락 하에서 저자가 독자를 향해 이야기하는지는 성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저자의 저술에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입장과 우리만의 맥락에서 그것을 다루는지에 대한 성찰 또한 중요하다. 만약 그리스도교 신앙을 돈독히 하려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입장에서 한 저술, 즉 예를 들어 볼트만의 저술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각 교과 신학적 기준 하에서 정통인지 아닌지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해당 교과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비판에 머문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본 연구는 볼트만의 연구를 신학적 입장에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서 종교사적 전망 속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20세기 서구 휴머니즘의 다양한 등장과 전개와 상황에서 루돌프 볼트만이 이 ‘휴머니즘’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를

---

6) Rudolf Bultmann, “Humanism and Christianity,” *Journal of Religion*, 32, (2/1952), pp. 77-86, “Humanismus und Christentum,” *Studien Generale I* (1948), pp. 70-77; *Glauben und Verstehen II: Gesammelte Aufsätze*, (Tübingen: Mohr Siebeck, 1952), pp. 133-148.

조명한다. 루돌프 볼트만의 사상에서는 이 휴머니즘적 관점과 그리스도교의 관점이 어떻게 상호 교차, 연결, 대치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통찰이 개진되어 있다. 20세기의 격렬한 사상적 격변의 시대, 그리고 20세기 신학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에큐메니컬 운동에 기여한 그의 사상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에 대한 접근은 휴머니즘에 대한 여러 고민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21세기의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성찰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II. 탈신화론화: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통한 이해

#### 1. 탈신화론화: 정치적 맥락

볼트만 신학 사상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탈신화론화’(Entmythologisierung) 논쟁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에서 볼트만의 ‘탈신화론화’는 일반적으로 ‘비신화화’(demythologizing)로서 일컬어진다.<sup>7)</sup> 볼트만의 비신화화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대의 신화적 표현들을 걷어내어 텍스트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나아가는 작업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볼트만이 말하는 그리스도교인의 ‘탈세계화’(Entweltlichung)가 영지주의적 탈세계화처럼 금욕주의나 극단적 자유주의로서 세계를 벗어난다는 의미

---

7) 볼트만의 주요 저작들 및 독일 성서학의 핵심 저술을 국문으로 번역한 신약학자 허혁(1919-1997)은 ‘탈신화화’로 번역하고 있다. ‘탈신화화’보다는 Entmythologisierung의 영문번역인 demythologization의 번역어로서 ‘비신화화’가 통용된다. 한 개념의 번역의 문제로 인해 오해가 빚어진 것이기 보다는, 신학계와 교계에서의 수용맥락과 관점의 차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가 아니듯, ‘탈신화론화’는 성서를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드러나는, 현대인의 과학적 우주관과 세계 이해방식으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신화를 모두 제거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를 기반으로 한 탈신화론화에 대한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때는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1941년에 독일의 특수한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 볼트만의 문제제기가 1947년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볼트만의 신학은 이단으로까지 일컬어지며 교계 및 근본주의적 신앙의 복음주의자들(Evangelikale)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개혁적, 개방적 성과에 기여한 사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sup>8)</sup> 주지할 것은 독일의 경우 신학계에서보다는 교계 및 일반 신도들에게서 탈신화론화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일어났었다는 점이다.<sup>9)</sup> 하이데거가 1964년 8월 17일, 볼트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온다. “내 바람은 당신의 모든 업적이 앞으로 지나치게 ‘탈신화론화’라는 꼬리표를 통해 가려져 남게 되지 않는 것이라오.”<sup>10)</sup> 2차 대전 전후의 시간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며 탈신화론화의 수용맥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본고 주제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면관계상 일단 40년대와 관련된 역사적 맥락만을 언급한다.

8) 베른트 야스페르트 저, 황현숙 역 『루돌프 볼트만 신학의 재조명: 신학과 교회에서 제기되는 볼트만 신학의 해석학적 문제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994), 55-56 쪽 참조.

9) 독일의 맥락 뿐만 아니라 영미권, 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탈신화론화가 수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신학, 교계의 경우 미국을 통해 신학 및 신앙 담론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 Rudolf Bultmann, Martin Heidegger, *Briefwechsel: 1925-1975*, Andreas Großmann, Christof Landmesser(eds.) (Frankfurt am Main; Tübingen: Vittorio Klostermann, Mohr Siebeck, 2009), p. 224.



볼트만이 탈신화론화라는 해석 방식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가 “신약성서와 신화론”(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1941)에서 상술하고 있듯이 그것은 이미 매우 오래 전 부터 요한복음서 등을 비롯하여 교회사에서의 알레고리적 성서해석 등에도 해당된다. 독일의 18세기 계몽주의 신학, 19-20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에서 성서 속의 신화는 비합리적인 내용으로서 그것으로부터 윤리적, 그리스도교적 의미만을 추출하면 되는 것일 따름이었다.<sup>11)</sup> 볼트만이, ‘탈신화론화’를 다시 거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당시 독일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야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하다.<sup>12)</sup>

1930년대, 나치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교회세력을 통제하며 나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독일 그리스도인’(Deutsche Christen)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볼트만은 바르트와 더불어 나치의 유대인 탄압정책을 비판하는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의 일원이었으며, 당시 나치에 편향된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변증법적 신학을 전개해갔다.<sup>13)</sup> 1940년대에 들어서며 나치의 그리스도교를 탄압이 거세어지고 ‘독일 그리스도인’을 탈퇴하는 이들이 급증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0

---

11) 이 때 ‘자유주의 신학’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의 ‘자유주의 신학’적 의미로 환원시킬 수 없다.

12) 볼트만 신학과 그의 해석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발터 슈미탈스의 ‘탈신화론화’에 대한 글을 참조하되 본고에서는 일단 역사적이고 종교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부분만을 참조한다. 신학적 논쟁과 비판점 및 그 현재적 의미는 좀 더 전문적인 신학적 논의 속에서 상세히 기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3)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조직들을 통합, 단일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느슨한 교회들의 조직이었던 ‘독일 개신교회연맹’(Deutsche Evangelische Kirchenbund)은 11월 7일, ‘독일 개신교회’(DEK: Deutsche Evangelische Kirche)라는 단일조직으로 통합된다. 7월 23일, DEK의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는데 히틀러의 NSDAP(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당)에 협력하는 ‘독일 그리스도인’(D.C.)이 DEK의 70% 장악하게 된다. 나치정권에 협력하는 교회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개혁신교, 루터교, 연합교가 협력하여 1934년, 고백교회를 결성하였다.

년 2월 7일과 8일, 베를린에서 ‘개신교회’(Gesellschaft für Evangelische Theologie)가 결성되는데, 독일에서 그리스도교가 위기에 처한 바,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며 공격하는 나치즘의 세계관에 대항하기 위해 학문적 신학(wissenschaftliche Theologie)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신학자들 가운데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볼트만의 발표문, 「신약성서와 신화론」이다. 또한 1941년 초반 볼트만이 바로 이전 해에 마르부르크 대학교회 성탄 예배에서의 경험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현재적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내지 못하고 다만 교리적으로 정확할 뿐인 설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글을 남겼다. 실존적 사유를 자극하지 못하고 도그마에 안주하며 이루어지는 말씀의 선포에 대한 그의 비판은 나치 정책을 옹호하는 정치적 성직자와 신학자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반성하고 개혁해야한다는 고백교회의 성직자, 신학자 동료들을 향한 성찰적 발언이었다. ‘독일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현재에 적응하여 매몰되어 버렸다면,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고백교회는 현실과 유리되어 정통 교리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전자가 이설(이단, Heterodoxie)의 길로 어긋나가 버렸다면, 그에 대항하는 후자는 정설(정통, Orthodoxie)의 길을 확고히 하고자 하나 그로 인해 현실과 유리된 경직성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였다. 볼트만은 내부자로서 내부의 쇄신을 권고한 강연을 수행한 것이다.<sup>14)</sup>

그러나 볼트만의 탈신화론화는 신학계와 교계의 논란 속에서 독일의 맥락을 넘어서 제 2차 대전 이후 다양한 곳에서 수용되었으며 종교적 정치 사회 문화가 표방하는 이설적, 무비판적인 체제유지에 대한 전복과

---

14) Walter Schmithals, “Zum Problem der Entmythologisierung bei Rudolf Bultmann,”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Vol. 92, No. 2 (Juni 1995), p. 168.

인간 실존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적극적 맥락까지 확장되었다. 따라서 탈신화론화는 당대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그 동기와 문맥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 2. 탈신화론화: 신학적 종교학적 상황

볼트만이 ‘신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탈신화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인데, 이 또한 당대의 신학적 종교학적 분위기를 이해 함으로써 가능하다.<sup>15)</sup> 1941년의 글에서 볼트만은 세계를 천당과 땅 지옥의 삼층 구조로 보며 땅을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천사와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로 바라본 신약성서의 신화적 세계관에 대해 현대인들이 처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신화론적 담화의 개별 모티브는 시대적으로 유대교의 묵시록과 영지주의적 구원신화에 소급되는 것이니, 이것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것일 뿐이다. 신화적 세계상은 자연과학적 세계관을 지닌 현대인에게 그저 과거의 것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에 있어 과거의 신화적 세계상을 믿어야 한다고 현대인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이 부당한 요구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sup>16)</sup>

지금 우리의 시각에 있어서 볼트만이 신화적 세계상과 과학기술문명의 세계상의 대립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신화’와 ‘신화적’인

15) ‘신화’(Mythos)라는 개념 그 자체만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방대한 주제이다. 특히 동아시아 근대 시기에 ‘신화’라는 신조어의 형성과 그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6) Rudolf Bultmann,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Hans-Werner Bartsch(ed.), *Kerygma und Mythos, Bd. I: Ein theologisches Gespräch* (Hamburg, 1948), p. 16.

것이 지나가버린 것이기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약성서를 이해해야한다고 볼트만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신화론적’(mythologisch)인 것의 의미를 저 피안의 것을 차안의 것으로 조우하고 표상해내는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며 당시의 인간 실존의 문제에 해석학적 다리를 놓아 현대인들의 신화 이해를 도와야하는 것이 성직자와 신학자의 과제라고 생각했다. 이는 실존론적 해석의 일환이기도 하였다.<sup>17)</sup>

볼트만이 그의 글에서 언급한 다음의 부분은 신화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탈신화론화 작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탈신화론화가 어떻게 수행되는지가 문제이다. 이러한 작업이 지금 신학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것은 3-40년 전에 이미 거론될 수 있었다. 오늘날 이에 대해 다시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신학적 상황의 빈곤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sup>18)</sup>

이는 1900-1910년대 볼트만 대학 시절 신학계의 신화를 둘러싼 분위기에 대한 언급이다. 당시 종교학자들은 신화적인 것(das Mythische)의 개념을 신약성서에 사용하기 꺼려했으며 볼트만의 스승인 헤르만(Wilhelm Herrmann, 1846-1922)은 신화적인 것을 제거하고자 했다.<sup>19)</sup> 유치한 단계의 학문이었던 신화는 발전된 학문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것이다. 도덕

17) “신화의 그 고유한 의미는 객관적 세계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화 속에서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신화는 우주론적으로가 아니라, 인간학적으로 - 더 낫게는 실존적(existential)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Ibid., p. 22.

18) Ibid., p. 23, 볼트만은 탈신화론화가 이미 신약성서 내부에서도 실현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유대 묵시문학적, 영지주의적 종말론은, 바울의 종말론적 실존 - 세계 속에서 살아가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통해 탈신화론화 된다. 요한복음 또한 유대 묵시문학적 영지주의적 종말론의 신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신화론을 탈피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신앙 속에서 인간실존을 바라보고 있다. Ibid., p. 23, pp. 29-31 참조.

19) Schmithals, pp. 182-183.

으로서의 종교로부터 신화적인 것은 일소되어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종교에 있어서 신화는 그 핵심과는 거리가 먼 부속물일 뿐이다.<sup>20)</sup> 이러한 경향이야말로 신화를 제거하는 의미에서의 탈신화론화였다.

볼트만은 이와는 달리 신약성서 내의 신화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한다. 신화 속에 인간의 신앙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삶에 대한 표현이 신화 속에 담겨 있다. 즉, 인간은 잘 알려진 세계 내에서 의존적이며 그에게 잘 알려진 것을 넘어 지배하는 힘에 의존적이다. 이러한 의존 속에서도 그는 비로소 그가 아는 힘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sup>21)</sup>

여기까지 볼트만의 ‘탈신화론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보았으나 본고에서 다루는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내용으로서 간단한 소개를 한 것뿐이다. 「신약성서와 신화론」은 소논문에 불과한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매우 압축적이며 인간의 실존과 관련하여 철학과 신학과 중첩되거나, 철학에서 세속화된 신학적 인간이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볼트만의 평가가 담겨있다.

## IV. 휴머니즘

### 1. 독일의 신휴머니즘(Neuhumanismus)

볼트만이라는 인물이 경험한 시대는 세계 제 1, 2차 세계 대전, 특히

20) W. Hermann, *Die Lage und Aufgabe der evangelischen Dogmatik in der Gegenwart* (1907), 141, Schmithals, p. 179, 각주 60)에서 재인용.

21) Bultmann,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pp. 22-23.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즉 나치 독재체제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산출된 그의 저술들의 의미가 드러난다.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는 서독이 재건되던 때이자 동독과 대립하는 냉전 시기에 볼트만이 집필, 강연한 글이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문명을 기반으로 첨단 무기가 동원되어 결국 핵무기 사용까지 일어난 세계 대전의 충격 하에서 이 시기 지식인들은 인간에 대한 문제, 휴머니즘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였다.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이룩해낸 기술문명에 대한 비판, 새로운 정치-경제 공동체에 대한 사유와 실천의 고민은 세계 제 1차 대전 이래로 진행되었으나 제 2차 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인해 서구 휴머니즘은 1940-50년대에도 여전히 더욱 핵심적인 화두로서 다루어졌다.<sup>22)</sup> 잘 알려진 바와 같이, 40년대에 부상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곧 휴머니즘으로 논의되었다. 나치 협력 지식인이라는 전력으로 인해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하이데거는 1947년, 당대인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르트르의 휴머니즘 및 서구 철학사의 전통적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글을 발표하며 지성계로 복귀하기도 했다.<sup>23)</sup>

그렇다면 1920년대 이래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와 학문적 협업을 했으며 이후에도 친교를 이어갔던 볼트만이 하이데거의 휴머니즘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성찰 속에서 자신의 글을 작성한 것인가. 볼트만의 전기를 집필한 교회사가 함만(Konrad Hammann, 1955-2020)은 볼트만과 하이데거의 “휴머니즘 서간”에서의 휴머니즘 개념과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지 않음을 명시한다.<sup>24)</sup> 이는 볼트만의 서신과 당대의 활동을 본다면

22) Sophie Picard, “Humanum und Nihilismusgefahr. Funktionen des Humanismus-Konzepts 1930-1950(Interdisziplinäre Tagung in Jena v. 24.-26.9.2015),”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Vol. 26, No. 2 (2016), pp. 411-414.

23) Martin Heidegger, “Brief über den Humanismus,” *Wegmarken, Gesamtausgabe Bd. 9.*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6), pp. 313-364.

하이데거의 휴머니즘 논의와의 내용적, 상황적으로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보인다. 볼트만은 학문의 장이 아닌 그리스도교계의 휴머니즘 인식을 논의하고 있는 바, 그의 글은 철저히 당대의 문제에 대해 다루는 에세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함만은 전후(戰後) 독일의 교육시스템이 재편성되는 상황 하에서 볼트만이 젊은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리스도교계에서의 휴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25)</sup>

볼트만의 이 글에서 휴머니즘은 서구 사상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휴머니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 교육과 거리를 두는 휴머니즘적 교육으로서 독일에서 18-19세기에 전개된 교육개혁운동인인 신희머니즘(Neuhumanismus)의 이해 속에서 좀 더 폭넓게 이해 가능하다.<sup>26)</sup> 신희머니즘은 르네상스 시기 휴머니즘 이후에 독일에서 일어난 휴머니즘을 가리킨다. ‘신인문주의’로도 번역되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은 파울젠(Friedrich Paulsen, 1846-1908)이라는 철학, 교육학 학자이다. 그는 18세기와 19세기 독일에서 그리스 로마 고전기를 미학적이자 교육학적으로 수용했던 특징을 이러한 용어로 지칭한 것이다. 따라서 18-19세기의 독일의 휴머니즘은 신희머니즘으로 일컬어진다.

---

24) Konrad Hammen, *Rudolf Bultmann: Eine Biographie* (Tübingen: Mohr Siebeck, 2012), p. 366, 각주 73) 참조.

25) Ibid., pp. 366-367.

26) 한국에서 휴머니즘은 다양한 맥락 하에서 인문주의, 인도주의, 인본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학, 철학, 신학적 의미 등을 포괄하는 서구 휴머니즘 전반에 해당되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문자성이 드러나는 휴머니즘을 사용한다.

## 2. 휴머니즘이라는 개념

그렇다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이 유럽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파울젠 또한 자신의 책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이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목사, 교육 개혁가였던 프리드리히 니트함머(Friedrich J. Niethammer, 1766-1848)가 『우리 시대의 교육-수업 이론에서 박애주의와 휴머니즘의 다툼』(*Der Streit des Philanthropinismus und des Humanismus in der Theorie des Erziehungs-Unterrichts unsrer Zeit*)(1808)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휴머니즘을 가리키는 이탈리아어 ‘우마네시모’(umanesimo)의 사용 또한 니트함머의 휴머니즘 개념 사용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때 니트함머는 휴머니즘을 교육철학으로서 논의하였다. 당시 박애주의(Philanthropinismus) 교육은 계몽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실용주의적 교육 및 가족과 나라,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윤리교육에 중점을 두며,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실용적 기술을 익혀 직업적 삶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이해되었다. 니트함머는 이러한 박애주의 교육 뿐만 아니라 고전 헬라어 교육과 미학, 역사교육을 통해 온전히 계발된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육성하는 것에 둔 인문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7)</sup> 휴머니즘은 따라서 실용적 교육 보다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정신적 교육을 강조한다.

18세기의 괴테, 헤르더 등을 필두로 하는 질풍노도 시기의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고전시기 교육의 이상(Bildungs-/Erziehungsideal)을 재생시키고자 했다. 신희머니즘적 교육프로그램은 ‘진’(Wahre), ‘선’(Gute), ‘미’

27) Friedrich Niethammer, *Der Streit des Philanthropinismus und des Humanismus in der Theorie des Erziehungs-Unterrichts unsrer Zeit*, 1808.; Lewis W. Spitz, “Humanismus/ Humanismusforschun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V*, p. 639.



(Schöne)의 이상을 추구했다. 플라톤에게로 소급되는 진·선·미는 고전 그리스시기에 아름다움과 선한 인격성을 구현해내기 위한 교육의 목표였으며 이후 유럽 사상의 전통에서 늘 등장하는 것이었다. 휴머니즘은 실용적인 보통교육(Allgemeinbildung), 그리고 김나지움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교육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sup>28)</sup> 교육의 차원에서 최초로 사용된 휴머니즘 개념은 이후 르네상스와 연관되어 유럽의 역사서술에 등장하게 되고, 특히 야콥 부트하르트(Jacob Burckhardt)의 저서로 인해 ‘르네상스 휴머니즘’에 대한 통념이 생겨나고 굳어지게 되었다.<sup>29)</sup> 우리가 서구 휴머니즘을 르네상스 시기로부터 시작된 일직선상의 발전으로 이해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이 19세기 정신적, 역사적 전개에 대한 서구의 자기이해의 계기가 내재되어 있다. 서구 문명의 특징으로서의 휴머니즘에 대해 서구 스스로 발견하고 주장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볼트만의 휴머니즘 이해

휴머니즘 교육철학 하에서 고전교육은 활성화되었으며 이로써 서구에서 문헌학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볼트만은 그리스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인간이해와 유대 그리스도교적 인간이해가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구 문명이 발전해왔다는 이해 속에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함만은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대한 당대의 신학적 담론의 장에서 볼트만의 입장이 독특했음을 지적한다. 그 입장은 그리스도교를 휴머니즘이 고양된 이념 유형이라고 바라보는 로마 가톨릭적 구상과 개신교에서 특히 하나님 말

28) Klaus Prange, “Neuhumanismus,”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XIV*, p. 315.

29) Jacob Burckhardt, *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 Ein Versuch* (Basel, 1860).

씀의 신학을 대표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모델 사이에서 중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볼트만 당시 개신교 진영의 많은 이들이 휴머니즘이야말로 소위 인간적 종교로서,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으로서 나치의 파국에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인간중심적인 휴머니즘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휴머니즘을 한국어 번역으로 바꾸어 정리해 본다면, 첫째, 볼트만은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인본주의’로 휴머니즘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 하에서 경전을 원문으로 읽고 재해석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신학적 주장을 해 나아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볼트만이 ‘인문주의’로서의 휴머니즘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휴머니즘적 그리스도교 혹은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이라는 혼합적인 방식을 지지한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 하에 볼트만을 성서적 진리에 충실하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평가한다면 이는 교파 신학을 수호하는 입장에서의 신학적 평가이다. 종교개혁과 이후 신학의 발전사에서 드러나는 신희머니즘적 영향과 중첩되는 흐름 또한 간과되는 것이다. 성급한 일반화와 교조적 해석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학적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앞서 상술한 독일적 상황에서 거론되는 휴머니즘에 대한 배경지식을 지니고 볼트만의 글을 독해해갈 필요가 있다.

## V. 볼트만의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1948)

볼트만의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의 첫 번째 논의는 1948년에 학술지, 「일반교육[교양교육]」(*Studium generale: Zeitschrift für die Einheit der Wissenschaften im Zusammenhang ihrer Begriffsbildungen*)

*und Forschungsmethoden*)에 실렸다. 이는 “개념형성 및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학문 통합”을 목표로 각 분과를 횡단하는 월간 학술지였다.<sup>30)</sup> 볼트만의 글은 총 3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 짧은 글로서 각 장의 제목은 없이 번호만 붙어있다.<sup>31)</sup> 학술지 성격상 이 글은 신학자들만을 위한 글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서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교라는 문화적 기반을 가진 서구, 그 중에서도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할 독일에서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인간의 역사와 휴머니즘의 정신

볼트만은 자신이 논하는 휴머니즘이 “15, 16세기에…학문과 교회 영역에서 정신적 움직임을 표시했던 바와 같은 역사적 의미에서 생각된 것이 아닌, 작금의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는 바와 같이 내용개념(Sachbegriff)으로서 생각된 것”임을 밝힌다. 그는 휴머니즘을 당대의 일상적이고 실질적 의미의 개념으로서 “인간의 본래적인 삶을 정신적인 것에서 보며, 인간을 참 인간으로 만드는 힘으로서 정신적 교육을 이해하는 자각을 표시”한다고 본다. 이러한 휴머니즘에 형태를 제공하는 정신으로서 진·선·미의 사유, 즉 학문의 근간으로서의 진, 공동체의 법이념과 윤리의 기반으로서의 선, 예술을 형성하는 미에 대한 그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본고 III 장에서 간략히 살펴본 독일 ‘신휴머니즘’의 맥락 하에서 볼트만이

30) *Studium generale: Zeitschrift für die Einheit der Wissenschaften im Zusammenhang ihrer Begriffsbildungen und Forschungsmethoden* (Springer, 1947-1971).

31) Rudolf Bultmann, “Humanismus und Christentum,” *Studium Generale*, 1948, pp. 70-77; *Glauben und Verstehen Bd. II*, pp. 133-148;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 『학문과 실존 III』, 허혁 역, 202-215쪽. 본문의 인용은 국역본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독어 원문에 가깝게 수정했다. 이후 인용은 잡지에 실린 페이지, 볼트만 소논문 모음집 독어본의 페이지, 국역본 쪽수로 표기한다.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선·미의 이념을 기반으로 창출되고 유지되는 “학문”, “법”, “예술”로 인해 이 세계는 인간에게 비로소 “고향”(Heimat)으로서 인식된다. 휴머니즘의 이러한 이상적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을 세계와 유리되지 않은 존재로서 인간의 정신으로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고향’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이데거의 ‘고향상실’에 대한 논의를 떠올리게 된다. 휴머니즘적 정신, 인간 본연의 정신성이 끝없는 노력을 통해 온전히 구현되고 건설되어 운영된다면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인간은 고향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세계는 인간에게 고향으로 느껴진다. 세계는 인간 정신으로 이해 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내어질 수 있는 곳이다. “진선미의 이념들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 법, 예술은 세계를 인간의 고향으로 만들고 인간 자신을 우주의 일원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인간의 정신은 그 우주를 정신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통일체로 바라본다.”<sup>32)</sup> 인간이 처한 곳이 낯설지 않으며 오히려 그의 고향이 되고 그의 이상과 정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의 편한 처소가 되도록 하는 정신이 바로 휴머니즘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 고향에서 자신의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더욱 구체화 하며 세계를 더욱 밝히는 작업에 매진한다.<sup>33)</sup>

32) 볼트만(1948), 203쪽.

33) 그리스 고전 시기를 이상으로 삼는 휴머니즘적 인간론은 볼트만이 1945년에 논의한 그리스적 사유에서의 인간상과 동일하다: “그리스적 사유는 인간 존재의 이해를, 인간 실존 안에 숨겨진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을 전체로서 우주를 관찰하는 데서 얻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이 사유는 인간을 종족(Gattung) 개념 아래서 본다. 조화로운 우주적 전체에 의해 둘러싸여있는 생물들 중 특정한 종족으로서 인간은, 이성과 정신의 소유를 통해 다른 생물들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서, 동시에 이 소유를 통해 신성의 존재와 닮은 존재로서 나타나는데, 이 신성은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우주 저쪽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체에 예속된 것으로서 생각된다.” 루돌프 볼트만, “아답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학문과 실존 I』, 허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86-87쪽. 이

휴머니즘의 역동성은 세계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인간의 활기찬 자신감과 인간 스스로의 대한 믿음에 기반한다. 신 또한 이 세계에 깃들여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불트만이 휴머니즘을 기술함에 있어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바라보지 않는 점이다. 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휴머니즘의 정신과 유산을 인정한다.

## 2. ‘탈세계화’의 의미

그리스도교에서의 인간존재에 대한 이해에서 휴머니즘과의 가장 큰 차이는 탈세계적 태도이다. 그리스도교의 인간 실존이란 탈세계화(Entweltlichung)이다. 이 세계는 인간에게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자각이다. 인간이 세계/세상을 등지거나 욕을 경시하고 영적, 피안적 삶을 추구해야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세계는 인간의 정신이 탐구되고 구현되는 장일 수 있다. 그러나 그곳이 인간의 고향은 아니다. 휴머니즘이 인간 정신과 그것이 구현하는 세계를 강조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인간 정신을 넘어선 신적 지평을 바라본다. 진선미가 정신의 중요한 동력이자 가치라면, 신은 바로 그 진선미를 통한 인지를 넘어 존재한다: “인간은 이미 진, 선, 미를 추구함으로써가 아닌, 오로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자유케하고 자신의 고향으로서 영원한 분에게 날아오를 수 있을 때에만 신을 인식할 수 있다.”<sup>34)</sup>

그리스도교에서의 진이란 학문이라기보다는 실존적으로 인식되는 신의 현실성이다. 이러한 신 인식은 학문처럼 소유될 수 없으며 늘 새롭게 얻어지는 미래적인 것이다. 선이란 법이 아닌 나에게 요구하는 신의 의

---

글은 야스퍼스 등의 주도로 창간된 월간 *Die Wandlung*에 기고한 것이다.

34) p. 71; p. 135; 204쪽.

지이다. 사랑의 요구를 듣고 인간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결단의 사건으로 선을 드러낼 수 있다. 미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 현실성의 깊이를 열어주는 예술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운명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예술작품에서 대상화될 수 없다. 오직 고난 가운데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sup>35)</sup>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신의 용서를 통해 은혜를 입어 이웃 사랑으로 결단하는 순간순간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탈세계화된 것이며, 인간 스스로가 이룩한 ‘공로’(Werk)가 아닌 ‘신앙’ 속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볼트만은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그리스도교적이라는 학문도, 그리스도교적이라는 윤리도 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치적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없다. 그리스도교적인 예술도, 그리스도교적인 교육도, 그리스도교적 교육학도,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christlicher Humanismus)도 없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종사하거나 - 학문과 예술과 같은 것처럼 - 그리스도교의 사유세계와 역사의 영역으로부터 소재를 선택하는 한 모든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학문, 혹은 ‘그리스도교적’ 예술을 말하는 것은 남용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적’ 방법은 이 모든 정신생활의 영역에 대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적[즉, 그리스도인] 제화공(Schustser)은 있더라도, 그리스도교적 제화업(Schuhmacherei)은 없다.”<sup>36)</sup>

그리스도교 신앙을 품은 인간의 행위는 있을지라도, 인간이 만든 제도 와 법에 그리스도교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인간의 실존과 자유의 문제이다. 또한 그리스도교와 휴머니즘이 동행하거나 반목했던 서구 역사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사유

35) pp. 72-73, pp. 137; 205-206쪽.

36) pp. 72-73; pp. 137-138; 206쪽

의 바탕으로 삼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볼트만은 그리스도교와 휴머니즘의 결합을 주장하지 않는다. 휴머니즘의 정신 하에서 인간은 세계를 인식처로 삼고서 진선미 이념으로부터 형태화된 법과 제도 하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는 세계 내의 인간의 자유이다. 반면 그리스도교인의 신앙 속에서 신자는 신의 용서라는 은혜 속에서 의인 ‘이어야 할 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과거를 자신의 공로를 통해 제거할 수 없으니 스스로 윤리적으로 성숙될 수는 없다.

칭의론의 의미는 죄인이 곧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되는 순간 의인이 된 상태를 획득하여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교회는 신의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기관일 수 없다. 교회의 존재는 용서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도록, 말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 교회의 의미가 있음을 볼트만은 강조한다.<sup>37)</sup> “그리스도교의 칭의론의 의미는 죄인이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이며, ‘이어야 할 자’로 아직 되지 않은 인간을 ‘이어야 할 자’가 된 것 같이 신이 받아들이는 바, 신이 그를 그러한 자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마치 ‘이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용서하는 말이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용서하는 말은 그때그때 순간을 향해 말해지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신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는 것임을 이해할 때에만 올바르게 이해될 것이다.”<sup>38)</sup> 여기에서 탈세계화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세계와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탈세계화’는 금욕적 방식을 통해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오히려 ‘마치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소유한다’는 저 변증법적인 것이다.”<sup>39)</sup>

37) 부자연스럽더라도 원문의 수동태적 의미를 살리고자 했다. p. 74, p. 141, 209-210쪽.

38) Ibid..

39) pp.74-75; p. 142; 211쪽

이러한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에 관한 그의 사유는 독일연방공화국 재건시 볼트만이 관여했던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문주의 교육에 관한 조언에서도 실천적으로 드러난다. 1948년 5월 7일, 올덴부르크의 교육사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그는 ‘신앙의 교회’(Kirche des Glaubens)와 ‘교회의 제도화된 형태’를 철저히 구분하였다. 제도교회가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즉 성직자의 교권주의가 행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종교적 가르침을 위한 책임기관으로서 ‘신앙의 교회’는 참작될 수 있으니, 학교에 종교교사가 있는 형태로서 가능하다. 학교는 종교교육을 책임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교회의 특권의식에 의해 그 권리를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sup>40)</sup>

### 3.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협력적 관계의 시대

볼트만은 1948년 6월 18일,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 1897-1952)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진단한다. 나치 시대를 통해 드러난 것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모두 독일에서의 교양권력(Bildungsmacht)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와 충만한 긴장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연관되어 발전한 휴머니즘을 재수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sup>41)</sup> 그리스도교가 휴머니즘을 수용하여 휴머니즘적 그리스도교가 되어야 한다든지,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이 확립 되도록 휴머니즘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는 없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될 때까지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고백교회

40) Hammann, p. 368.

41) Hammann, p. 363.



와 같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교는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 나치에 협조적이었으며 이후 전체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탄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휴머니즘 또한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나치 이데올로기 하에서 드러난 것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 한 인격체로서의 자의식이 결여된 현대인의 모습이였다. 이는 반휴머니즘적 인간상이었다. 인간은 한 인격체가 아닌 국가라는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했으며 휴머니즘적, 즉 인문주의적 교육이 철저히 억압되어 상실된 시기였다.<sup>42)</sup>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교와 휴머니즘이 반목할 때도 있었으나 공존하며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그 간의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은 서구 역사가 기계화에 힘입은 현대적 야만(나치에서 그 정점에 다다른)을 포함하여 다시 야만으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휴머니즘 속에 보전된 고전기의 전통의 정신적 힘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야만 혹은 한 특정한 문화의 형태나 단계와 연관되지 않기에 학문과 교육, 법과 예술을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인간은 언제나 재차 야만에 빠질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볼트만은 그리스도교에 인간실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그리스도교조차 나치의 야만에 빠졌었음을 상기해야한다고 말이다. 당대의 고백교회는 나치에 저항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역사를 살아가는 개별인간으로서의 인간실존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언제나 신의 용서의 빛을 통해서만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순간 누릴 수 있을 뿐이며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으로서만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적 인간이해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성찰적으로 돌아보더라도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가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 없다.

---

42) pp. 76-77, pp. 147-148, 214-215쪽.

따라서 그는 방종의 극단으로 나아간 나치즘의 배후에 인간을 세계의 주체로 세운 휴머니즘이 있었다는 그리스도교계의 비판적인 시선을 재고해 볼 것을 촉구한다.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입장에서는 휴머니즘적 신관념이 망상이나 오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휴머니즘적 관념이 신인식으로 지칭되며 오해를 산 것이지, 올바르게 본질적인 인식의 표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그의 반문이다. 휴머니즘적 인간이해에는 인간적 자의식의 기초적인 가능성(Grundmöglichkeit), 즉 이성을 갖추고 인간 정신의 고귀함과 의무에 대해 믿음을 지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속하는 가능성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논박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sup>43)</sup> 이는 역사적 이해에 기반을 두어 휴머니즘을 이해할 것을 그리스도교계에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휴머니즘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교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일도 모두 무의미하다. 볼트만은 휴머니즘에서의 실존이해와 그리스도교의 실존이해가 늘 함께로서만 존재 가능함을 ‘역사적 운명’으로 단언한다.<sup>44)</sup>

휴머니스트에게도 자명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알지 못했던 반성의 힘(Kraft der Reflexion)이 그리스도교에서 탄생하여 역사 속에서 인간 영혼의 새로운 깊이를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필두로 한 자서전적 유산이 바로 그 예이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고려함으로써만 근대적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의 거대한 움직임들, 즉 중세의 유명론과 신비주의에서 발원하였고 라이프니츠(Leibniz)와 샤프츠버리(Schaftsbury), 하만(Hamann)과 헤르더(Herder)를 거쳐 낭만주의로 나아가는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 실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43) pp.74-75; p. 142; 210쪽

44) p. 76; p. 145; 213쪽.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도록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휴머니즘에 도사리고 있으며, 휴머니즘의 찬란한 성과인 학문과 법, 예술은 인간 그 자체의 수수께끼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해답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적 삶에 관련하여 의문스러운 점들에 대한 정직한 고백의 형태가 드러나 왔다는 점이다.

볼트만은 동시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휴머니즘과 그리스도는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요청되는 시대 인식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것은 비인간화, 인간의 소외, 인간의 주관주의의 방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노선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관주의의 방종에 대한 투쟁에서 휴머니즘과 그리스도 신앙은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진선미는 인간의 완성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그 규범의 정당성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볼트만은 이 둘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비유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롬 10: 4)라고 복음의 의의를 전한다. 신과의 참다운 관계를 찾아내는 데에 있어 율법은 그것을 다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서나 수단으로서는 한계에 다다른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된다. 용서하는 신의 은총에 힘입어 해방된 신자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복음이 시작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롬 13: 8, 10).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갈 5: 14).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는 함께 근대적 상대주의와 허무주의 그리고 모든 비인간성에 대하여 함께 저항한다.<sup>45)</sup> 더욱 기계화되고 조직화되는 세

계 속에서 인간은 더욱 더 목적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오용되어 상황을 위한 부품으로 전락되거나 본질상 정치적인 특징을 지니고 타산적 정책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자연적 발전의 산물로 취급되어 그 삶의 의미가 착취당한다. 이 때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격으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적대감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는 점에서 함께한다.<sup>45)</sup>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는 서구 역사 속에서 함께 발전해왔으며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목표, 즉 비인간성에 대해 투쟁하는 동맹관계이다. 이 관계는 늘 긴장을 이루며 이 긴장은 각자를 돌아보는 성찰적이며 발전적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서구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볼트만의 논의는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진동과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인간 이해와 해방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 VI. 나가며

본 연구는 우선 볼트만이 20세기 전후의 시절 휴머니즘의 지위를 어떻게 당대의 정치적 국가적 상황에서 재해석 했는지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그가 전개한 사유의 여러 정치사회적 상황을 독해함으로써 볼트만의 종말론적 사유와 신학의 핵심을 역사적 조건들과 결부시켰다. 그의 비신화론과 종말론은 내면적인 문맥에서보다 당대의 조건의 문맥에서 해석할 때 더욱 그 중요한 면모가 드러난다.

당대의 현장적 고민 속에서 볼트만은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

---

45) pp. 76-77, pp. 147-148, 214-215쪽.

46) Ibid..

에 대해 조명하였다. 볼트만 당대는 전후의 혼란기였다. 특히 근대성이 파국이 그 정점에 이르렀던 전범국 독일이 그의 삶의 자리였다. 볼트만의 관심은 독일의 새로운 정신적 근거를 세워가는 일이었으며 40년대 말 구체적으로는 전후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사안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교 전통 만에 입각한 새로운 사상적 구상을 전개하지 않았다. 비인간화와 주관화, 상대화의 문화와 인간 조건에 대한 저항에서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는 함께 저항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펼치는 주요한 논지는 결국 서구 문명의 양대 축인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뚜렷이 반대되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며 양 측이 결코 혼재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휴머니즘인 동시에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 실존보다는 관념의 차원과 관념이 구현되어 형성된, 인간을 규정하고 통제하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볼트만이 그의 글에서 이미 짧게 언급하고 있으나 휴머니즘과 그리스도교의 관계는 그 서구 역사와 사상의 발전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게 긴밀하게 발전되어 왔다. 양측은 서로의 차이로 인한 자극을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긴장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특히 휴머니즘 전통과 그리스도교 전통이 교차되는 지점으로서의 사상가, 즉 인간의 사유와 삶, 실존에서 잘 드러난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와 그 정신사적 문제를 성찰한 볼트만의 사유에 대해 현대 한국의 토착신학, 한국적 신학을 추구한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해방, 그리고 뒤 이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한국의 상황은 극도의 혼돈기였다. 자유와 혼란, 내전으로 인한 분단 및 적대적 대치상황, 전통과 현대, 국가/공동체와 개인 등 양 극의 적대적 대립 상황에서 양자택일이 아닌 양측을 충분히 인정하며 공동의 선한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

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볼트만의 사유를 통해 한국의 신학자 및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용맥락이 완전히 지나가버린 사건으로서 잊힌 측면이 없지 않다. 볼트만의 탈신화론화 및 실존론적 사유의 자리와 삶이 잘 고려되지 않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고방식에 여전히 근본주의 대 자유주의, 정통 대 이단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직도 지배적인 것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물론 그의 사상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개인의 실존적 차원에 머문다는 비판은 늘 있어왔으며 여전히 그 비판은 유효하다. 그러나 비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한국인으로서 그의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수용되었는지, 그 이후 우리는 어떤 점을 취하며 우리의 신앙과 학문과 실존을 갱신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sup>47)</sup> 더 나아가 인격으로서의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의 인간실존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에서 역사와 사건과 인간을 바라보아야 할 과제가 현재의 우리에게도 있다.

---

47) 신학자 허혁이 볼트만 논문집에서 글을 선택, 번역하였으며 독어본의 제목인 ‘신앙과 이해’가 아닌 ‘학문과 실존’이라는 제목을 택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다.

## ▣ 참고문헌

- 루돌프 볼트만/서남동 역. 『역사와 종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 루돌프 볼트만/유동식 역.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신약성서와 신화론』. 서울: 신앙사, 1959; 1969.
- 루돌프 볼트만/유동식 역.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론』. 서울: 신앙사, 1959.
- 루돌프 볼트만/유동식·허혁 역.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 루돌프 볼트만/허혁 역. 『학문과 실존 I』. 서울: 성광문화사. 1980.
- \_\_\_\_\_. 『학문과 실존 II』.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_\_\_\_\_. 『학문과 실존 III』.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베르트 야스페르트. 『루돌프 볼트만 신학의 재조명: 신학과 교회에서 제기되는 볼트만 신학의 해석학적 문제들』.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Bultmann, Rudolf. *Glauben und Verstehen: Gesammelte Aufsätze, Bd. II*. Tübingen: Mohr Siebeck, 1952.
- Bultmann, Rudolf. “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Hans-Werner Bartsch(ed.), *Kerygma und Mythos, Bd. I: Ein theologisches Gespräch* (Hamburg, 1948), p. 16.
- Bultmann, R. and Five critics. *Kerygma and Myth: A Theological Debate*. H. W. Bartsch(ed.), R. H. Fuller(trans.). New York: S.P.C.K., 1953.
- Hammann, Konrad. *Rudolf Bultmann: Eine Biographie*. Tübingen: Mohr Siebeck, 2012.
- Heidegger, Martin. “Brief über den Humanismus.” *Wegmarken, Gesamtausgabe Bd. 9*. Frankfurt am Main: Vittorio Klostermann, 1976.
- Hübner, Hans. “»Existentiale« Interpretation bei Rudolf Bultmann und Martin Heidegger.”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Vol. 103, No. 4 (Dez., 2006).
- Prange, Klaus. “Neuhumanismus.”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XIV*, Berlin/New York: De Gruyter, 1994.
- Picard, Sophie. “Humanum und Nihilismusgefahr. Funktionen des Humanismus-Konzepts 1930-1950(Interdisziplinäre Tagung in Jena v. 24.-26.9.2015).”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Vol. 26, No. 2 (2016), pp. 411-414.

Spitz, Lewis W. "Humanismus/Humanismusforschun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XV*,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7.

Schmithals, Walter "Zum Problem der Entmythologisierung bei Rudolf Bultmann."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Vol. 92, No. 2 (Juni 1995).



〈Abstract〉

A study of a case of reflection on 'humanism  
and Christianity' after World War II:  
Focused on Bultmann's discussion

Kim, Taeyeon

This paper deals with the tex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sm and Christianity in European history discussed by German theologian Rudolf Bultmann after the World War II. It is worth noting that the Korean theologians who envisioned the indigenous Christian theology were deeply interested in Bultmann's existential thoughts and hermeneutics. Bultmann's theology is nowadays, however simply understood under the well-known titles 'existential theology' or 'demythologization' in a generalized way without not only in-depth considering of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birth of his thoughts but also the history of their reception. Bultmann's text, "Humanism and Christianity" also seem to be insufficiently considered in its historical context. In this regard, this study firstly attempts to understand with contextualizing the concepts what he used in his text, 'humanism', Christian existence and their relationship. Then I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the first version of "Humanism and Christianity" published in 1948. These steps will be able to be a contribution for a

preparation of the future study of examination of the Korean religious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oughts for indigenous theology, which was inspired by Bultmann's hermeneutics in the period after WW II and Korean war.

Key Words : Rudolf Bultmann, Humanism, Humanism and Christianity, Neuhumanismus, National Socialism(Nazi), Christian existence, demythologization(Entmythologisierung)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9일에 접수되어 11월 20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4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